

**고양 바이오메디칼캠퍼스
「相永 바이오관」 준공식**



◎ 27(목) 이사장스님과 총장님, 원장스님과 大施主 KCC 정상영 명예회장(법학과55학번), 고양시장님 등을 모시고 「상영 바이오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바이오관은 동문이신 정상영 회장님께서 사재 118억을 기부해 완공되었으며 그 뜻을 기념하고자 '相永 바이오관'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세계문학포럼
아일랜드 대사 초청강연**



◎ 24일(월) 법당에서 아일랜드 대사 양엘 오도노휴 님의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아일랜드 종교 · 이주 · 문화에서 본 작은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원장스님과 함께 학생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영상 - "방짜유기" (금강경 독송회)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기타선율에 법문을 실어
- 법 사 : 지담스님(동림회 사무총장)
-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2. 6(토)	대각전 원불봉안법회 (장소: 본교 이해림예술극장 2층)	원장스님
12.13(토)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사) 바른법연구원장
12.20(토)	담마토크	동효스님 하남 상불사 주지스님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팔정도부처님
불사 시주 동참 권선**

건학108돌, 봉불50돌
「청동석가여래입상 개체불사」
동참 불자님은 청동판에 이름을 새겨드리며 정성껏 축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보시동참

11월 24일 불전 공양

₩ 1,035,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희, 고제선,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동상, 김동연, 김무수, 김종관, 남창강, 박사임, 박성진, 박수미, 박영순, 백광호, 썬리랏, 방릉숙, 안대준, 양차은, 오유순, 윤동규, 원서준, 윤병남, 이기형, 이미옥, 이봉자, 이수자, 이수준, 이옥희, 임남심, 정도원륜, 정찬혜, 정혜미,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14,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팔정도 불사

이명제

인등 보시

강은미, 강은희, 김규란, 김미선, 김민정, 김월용, 김지수, 김지희, 김진규, 정보현, 정은재, 정재우

공양 보시

❖ 불단과일 : 박은식(회갑)

❖ 불단 떡 : 김도영(심영자 보살님 자녀)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문의 ☎ 2260-3016~20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767명 입니다.**



**동국인의 마음산책
문자서비스 후원보시**

향기로운 부처님 법문을 전해드리는 동국인의 마음산책에 후원보시 해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현재 주3회, 1,715명 발송 중)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1월 29일

제269호(週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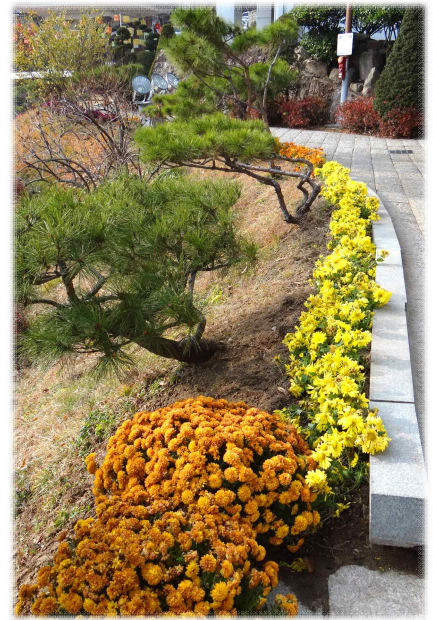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제 몸을 베고 있는 것과 같다.
악한 사람을 칭찬하고 착한 사람을 헐뜯어서 입으로 갖가지 허물을 짓는다면
이것은 악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비나야율」



晚秋! 국화향기 가득한 우리법당 정각원^^



◎ 조계사에서 모셔온 가을 전령, 국화 10,800송이를 정각원 법당 주변에 장엄하였습니다. 부처님의 향기로운 가르침처럼 법당을 감싼 짙은 국화향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염화미소를 짓게 합니다. 법회 후 국화향기 가득한 법당 주변을 거닐어 보세요~

【 대각전 원불 봉안법회 안내 】



◎ 12월 6일(토) 「대각전」에서 **토요일법회가 願佛봉안식과 함께 봉행**됩니다. 봉안불자는 물론, 일반 신도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2558. 12. 6(토) 10시~12시
- * 장 소 : 대각전(이해랑예술극장 2층)
- * 봉안신청 : 願佛(1佛) 100만원이상 (금일마감)
- * 문 의 : 정 각 원 02)2260-3016~20
대외협력본부 02)2260-8992,3

<제1부> 봉불 헌공과 축원(10:00 ~ 11:00)

- 점안의식
- 동참신도 축원

<제2부> 봉불 봉축 토요일법회(11:00 ~ 12:00)

- 삼귀의
- 경과보고 (대외협력본부장님)
- 인사말씀 (정각원 신도회장님)
- 봉축사 (총장님)
- 청법가
- 법문 (정각원장 법타스님)
- 정근보시
- 음성공양(성악가 정행스님 / 정각원합창단)
- 사후서원
- 점심공양 : 그루터기식당(경영관 지하1층)

건학 108돌에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주지 입진스님) - 1억
(주)산양약품 김진문(경영 64학번) 대표님 - 1억

기타선율에 법문을 실어

< 초청법사 : 지담스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교구본사 법주사 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 중앙승가대학교졸업 ● 동국대불교대학원 문화재 콘텐츠학과 석사졸업 ● 서울 전문 강당 졸업 ● 마가스님의 자비명상졸업(명상심리 재학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 공동체 「총동림동문회」 10대 사무총장역임 (現) 총동림동문회 제11대 사무총장 강원도 홍천 백락사에서 기도수행 |
|--|--|

정진의 길 (허공)

애착 때문에 생긴 탐진치 삼계 고해 괴로움 되고
 깊고 오묘한 부처님 법은 육도중생 피안의 세계
 비워야 할 마음도 끊어야 할 번뇌도
 불법 속에 묻어 놓고 꿈속에도 불국토
 힘들어도 기어이 높더라도 기어이
 이루리라 부처님 나라

무명 때문에 육도윤회로 생사병사 괴로움 되고
 높고 미묘한 부처님 법은 생사해탈 열반의 세계
 참회하는 마음도 끊어야 할 집착도
 불법따라 수행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모든 법은 인과응보요 자업자득 이니라
 믿고 배우고 실천하리라

사랑의 이름표

부처님 모신 이 가슴에
 확실한 부처님의 도장을 찍어
 이세상 끝까지 함께 기도한다면
 확실하신 불자여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은
 쓰라린 아픔인거야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부처님을 사랑하는 이 가슴에
 자비광명을 이루세

안동역에서 (진성)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 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 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시계바늘 (신유)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웃음 한 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 후회도 없는 거야
 아 ~ ~ 아 ~ ~ ~ ~~~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나 난 나나 ~~~~)x2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 후회도 없는 거야
 아 ~ ~ 아 ~ ~ ~ ~~~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x2

관세음보살 (얏으나 서나 당신생각)

얏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x2
괴로울 때 의지하는 곳
부처님의 자비심 잊지 말자고
다짐하면은 선한 마음 우러나오고
악한 마음 품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얏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x2
떠오르는 부처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x2
생사고해 어두움 속에 새 광명이 비추길
가슴 속 깊이 맹세할 때에 보살님 우러나오고
탐내는 마음 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x2
떠오르는 부처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천의 손 천의 눈 (범능스님)

내가 두 손을 따스히 내밀면
나의 두 손은 천 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크게 멀리 뜨며는
두 눈은 천 개의 눈이 되리라

천수천안 내가 천의 손 천의 눈으로
님처럼 관세음 온 누리 보살펴 주고
님처럼 관재재 온 세상 껴안아 주고
한 몸 한마음 이루어지이다

내가 두 손을 다정히 내밀면
나의 두 손은 천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밝게 활짝 뜨며는
나의 두 눈은 천 개의 눈이 되리라
천수천안 내가 천의 손 천의 눈으로
님처럼 관세음 온 누리 보살펴 주고
님처럼 관자재 온 세상 껴안아 주고
한 몸 한 마음 이루어 지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가는 세월 (서유석)

가는 세월 그 누군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몸이 흠이 되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몸이 흠이 되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몸이 흠이 되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